

제목 : 노동식당

작가 : 콩이

등장인물 : 사장님, 알바생, 서빙로봇, 노동부

#장면 1 (노동식당)

알바생 : (고소하게 웃으며) 사장님 안녕하세요?

사장님 : 오 그래, 알바생 잘 왔다.

알바생 :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?

사장님 : 서빙하는 로봇한테 주문오면 알아보자.

알바생 : 제게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.

서빙로봇 : 땡동! 17번 좌석에 앉은 손님이 칼국수를 주문하였습니다.

알바생 : 빨리 칼국수를 만듭시다

(알바생이 열심히 칼국수를 만든다)

알바생 : (서빙로봇에게) 칼국수 얹고 출발!

서빙로봇 : 17번 좌석에 도착했습니다. 손님은 칼국수를 내려놓으십시오. 식사를 내려놓으셨다면 출발 버튼을 누르십시오.

사장님 : 오, 서빙로봇이 들어오는구나.

알바생 : 제가 다 했어요.

사장님 : 이따가 식당 끝날 시간에 십만원 줄게.

(알바생은 일은 계속 했다. 그런데 식당이 끝날 시간에 사장님은 돈을 만원만 줬다)

사장님 : (화를 내며) 알바생! 돈이 만원밖에 없어! 십만원을 줄 수 없어!

알바생 : 거짓말인가요?

사장님 : (화를 내며) 진짜 만원 밖에 없다고! 이 알바생아!

알바생 : (억울한 마음으로) 오늘 우리 식당이 처음 연 날인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? 우리 식당 끝나는 시간에 십만원 주기로 계약했거든요! 계약서 갖다드릴게요.

사장님 : (화를 내며) 야! 이런 계약서가 다 뭐야! 나 다 찢어버릴거야!

알바생과 서빙로봇 : (분노하며) 이 사장님 노동부에 신고할까?

(알바생이 노동부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)

노동부 : 여보세요?

알바생 : 예, 노동부 맞으신가요?

노동부 : 네,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?

알바생 : (다급한 마음으로) 사장님이 계약하고서는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어요. 게다가 오늘 식당도 처음 연 날인데, 빨리 조사해주세요!

노동부 : 네, 빨리 조사하러가겠습니다.

(쿵쿵쿵쿵, 노동부가 조사를 온다)

사장님 : (다급한 마음으로) 노동부가 조사온다! 빨리 피하자!

알바생 : 노동부님, 지금 사장님이 없어져버려서요, 제가 찾을 수가 없

어요. 노동부가 같이 도와주시겠어요?

노동부 : 네, 물론이죠.

알바생 : 노동부와 같이 사람을 찾기 시작!

노동부 : (무서운 목소리로) 사장님이 여기 있었군요. 조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

(이런 일로 사장님은 노동부로 끌려갔다.)

#장면 2 (노동부)

노동부 : 사장님, 돈이 없다는게 사실인가요?

사장님 : (사과하는 마음으로) 아니오, 저 돈이 천만원까지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.

노동부: (무서운 목소리로)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잡혀갑니다.

사장님 : (사과하는 목소리로)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알바생한테 돈 주겠습니다.

#장면3(노동식당)

(사장님이 편지를 보냈다)

알바생에게.

알바생, 미안해요.제가 계약한 규칙을 제가 안 지켜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사장님이.

2025년 12월 25일 목요일

끝!